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Goldman Sachs: 2023년 매크로 경제 전망: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다르다
- CNN Business: 추수감사절 식품비, 작년보다 13.5% 상승

#### [미국 금융]

- Bloomberg: 금리 인상에 팬데믹때 받은 미국인 부양 저축액 급락

#### [부동산]

- WSJ: 투자업체 주택 구매도 30% 하락... 고금리, 고물가로 주택 시장 냉각

#### [중국]

- WSJ: 미중 국장 장관 만나... 긴장 완화 신호
- Bloomberg: 상하이 도착자들은 5일간 공공장소서 격리... 11월 24일부터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LG화학, 4.3兆 '통큰 투자'... 테네시에 美 최대 양극재 공장
- 연합: "중국 코로나 재확산, GDP 20% 차지하는 지역에 봉쇄·통제 영향"
- 경향: OECD, 향후 2년 연속 한국 경제 성장률 1%대 전망... "당분간 긴축 정책 지속 권고"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美 빅테크 기업들 대규모 해고... H-1B 소지자들 대응에 부심
- CNN Business: 미 고용주 내년 임금 4.6% 인상 계획... 15년 만에 최고치
- WSJ: 베스트바이와 Dick's Sporting Goods, 양호한 3분기 실적 발표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Goldman Sachs: Macro Outlook 2023: This Cycle Is Different 2023년 매크로 경제 전망: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다르다

- 올해 글로벌 경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둔화했다: 팬데믹 재개 (reopening) 경기 진작 감소, 타이트한 재정/금융 정책, 중국의 코비드 제한 조치와 자산시장 슬럼프, 러시아 전쟁 상황이었다. 예상하느바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단지 1.8%로 예상된다. 유럽의 침체와 중국의 불안정한 리오프닝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의 핵심 PCE(개인소비지출가 현재 5%에서 내년 하반기에 3%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률은 1/2pp 상승) 경기 침체는 가까스로 피할 것으로 보인다.
- 미 실질 소득 증가가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 아래로 유지하도록 금리가 1.25% 더 인상돼 정점 5-5.25%를 찍고 있는데 내년에 금리 하락은 예상되지 않는다.

- 적은 고용 타격으로 핵심 인플레이가 어떻게 크게 떨어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번 경기 사이클은 예전의 고물가 시대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 첫째, 포스트 팬데믹 노동 시장의 과열이 지나친 고용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에 전례없는 일자리 채용공고로 나타났다.
- 둘째, 공급망과 주택 임대 시장이 최근 정상화되면서 이것이 인플레이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세번째,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는 여전히 강하다.
- 유럽과 영국은 이미 침체에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주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탓이다. 그러나 유럽은 큰 피해 없이 러시아의 가스 수입을 이미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깊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줄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가 감소하는 상황이라 유럽은 내년 5월까지 유럽중앙은행의 3% 금리 정점으로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 중국은 올해 4월 리오프닝이 코비드 감염 사례의 급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성장세가 천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에는 재오프닝 경기 진작을 통해 성장이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데 이유는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더 둔화(인구통계와 생산성 약세를 반영해서) 될 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원문

### CNN Business: The rising cost of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식품비, 작년보다13.5% 상승

- 시장 조사 회사 IRI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공급망, 악천후와 같은 이슈들로 인해 추수감사절에 사용되는 식품비 대부분이 올랐다.

#### • [주요 식재료의 상승률]

칠면조: 24.4%

감자: 19.9%

크랜베리 소스: 18.1%

샐러드와 잎채소: 8.7%

계란과 버터(마가린 또는 스프레드 포함): 각각 74.7%, 38.5%

- 일부는 집에서 요리를 간소화하거나 간단한 가족 외식으로 대체하겠다는 분위기도 생겼다. 쇼핑은 자제하고 연말 여행도 가까운 곳으로 대체하거나 취소한 경우도 많다.
- 여행 관련 앱 호퍼(hopper)에 따르면, 오는 11월 20~24일 평균 왕복 국내선 항공료는 350달러로 작년보다 약 43% 오를 전망이다.

CNN Business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Fed Hawkishness Peaks as Rising Debt Payments Erode Savings

### 금리 인상에 팬데믹때 받은 미국인 부양 저축액 급락

- 팬데믹 때 받은 2021년까지 모아둔 초과 저축이 약 2조 3천억 달러였다. 당시에 수요는 줄고 정부 부양 현금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와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은 급속도로 줄고 있다. 개인 저축률은 가처분 소득 비율로 계산된, 가처분 소득과 소비간의 차이를 말한다. 저축액이 팬데믹 때 33%까지 치솟았으나 현재 3.1%로 거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부동산]

## WSJ: Investor Home Purchases Drop 30% as Rising Rates, High Prices Cool Housing Market

### 투자업체 주택 구매도 30% 하락... 고금리, 고물가로 주택 시장 냉각

- 투자업체들의 주택 구입도 3분기에 30%나 감소해 용자율 상승과 높은 주택 가격이 전통적인 구매자를 밀어낼 뿐만 아니라 이들 주택 투자 회사들도 밀어내고 있다.
- 부동산 중개 Redfin이 40개 주택 시장을 추적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3분기에 6만6천채를 구입했다. 작년 동기에는 9만4천채였다.
- 이같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감소율은 주택 구매가 무너진 팬데믹 때 즉 2020년 2분기를 제외하고는 서브 프라임 위기 이후로 분기별로는 구매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WSJ 기사

### [중국]

## WSJ: U.S., Chinese Defense Chiefs Meet in Reflection of Easing Tensions

### 미중 국방 장관 만나... 긴장 완화 신호

-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수개월만에 캄보디아에서 처음 만나 양국 관계와 안보 이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이달 초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후 이루어졌다.
- 얼마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에 양국간에 기장이 고조된 후 해빙하는 최근의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한편 지난주 토요일에도 미 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방콕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바이든과의 만남이 전력적이고 건설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양국이 오해를 불식시킬길 희망한다고 중국 외무부는 전했다.

- 해리스 미 부통령도 미국은 충돌을 원치 않으며 글로벌 이슈에 대해 양측이 상호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WSJ 기사

## Bloomberg: Shanghai to Strengthen Covid Rules on New Arrivals From Nov. 24

### 상하이 도착자들은 5일간 공공장소서 격리... 11월 24일부터 적용

- 상하이 당국은 도시에 새로 도착한 이들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 술집, 쇼핑센터, 슈퍼마켓, 인터넷 카페, 유흥 시설 등 다중 시설로부터 5일간 떨어져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이는 중국 전역에 감염 사태가 다시 발생해 금융 센터인 상하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들 새로운 도착자들은 도착 직후 3일간 매일에 걸쳐 총 3번 테스트를 받은 후에 5일째 되는 날에 추가로 감염 테스트인 '핵산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 한편 이번주 월요일 현재 중국은 새 감염자 숫자가 27,307으로 4월의 매우 높았던 28,973건과 거의 비슷한 감염수를 보이고 있다.

## Bloomberg 기사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LG화학, 4.3兆 '통큰 투자'...테네시에 美 최대 양극재 공장
- [연합] "중국 코로나 재확산, GDP 20% 차지하는 지역에 봉쇄·통제 영향"
- [경향] OECD, 향후 2년 연속 한국 경제 성장률 1%대 전망...“당분간 긴축 정책 지속 권고”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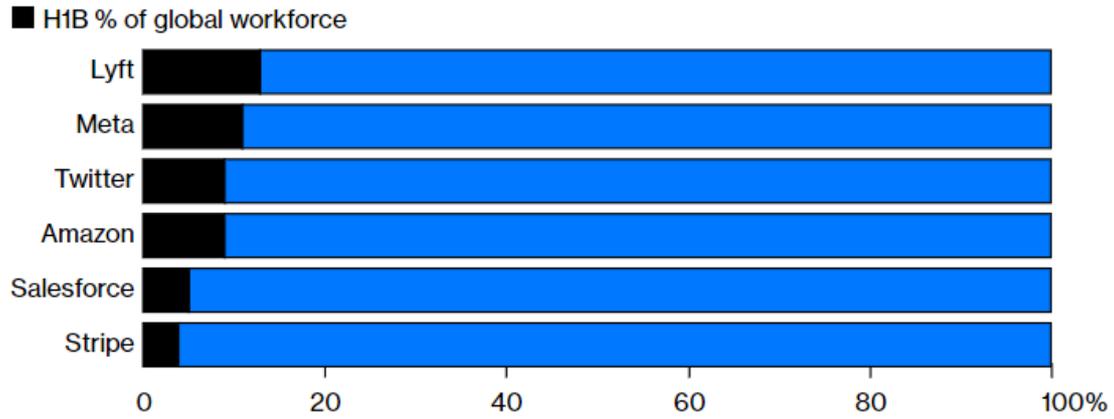
## Bloomberg: Tech Layoffs Send H-1B Visa Holders Scrambling for New Jobs

### 美 빅테크 기업들 대규모 해고... H-1B 소지자들 대응에 부심

- 아마존, 메타, 트위터와 같은 대기업에서 해고된 수백명의 실직자들, 특히 컴퓨터공학 및 엔지니어 부문 기술직으로 입국한 H-1B 비자 소유자들은 60일내 새 스폰서(직장)를 찾지 못하면 떠나야 하는 상황.

### Crucial Workforce

Companies that conducted major cuts employed many visa hol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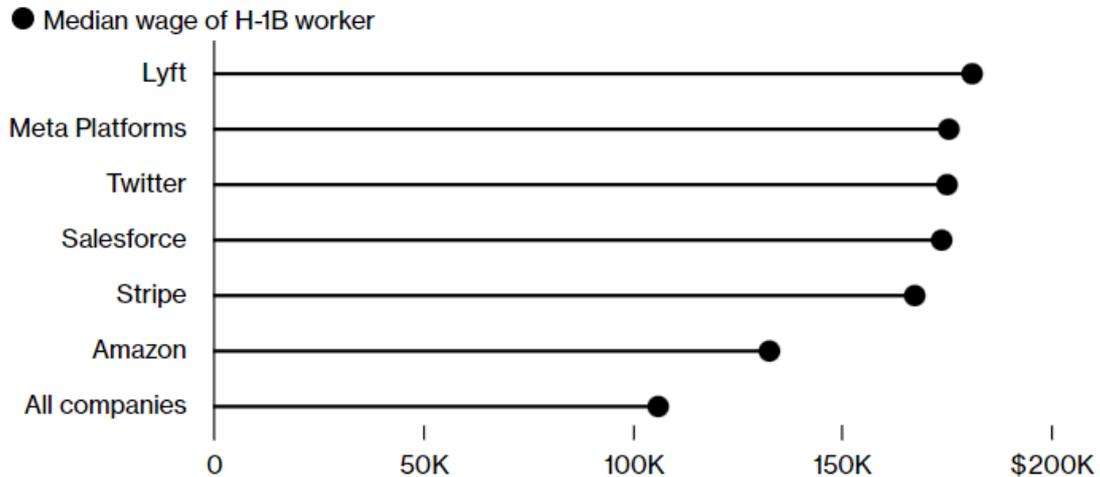


Source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SEC filings, Bloomberg  
 H-1Bs based on FY 2019-2022 applications with 15% attrition. Amazon excludes warehouse and hourly

- H-1B 비자는 연장이 가능하고 수요가 많다. 과거 미국 근로자들이 부족했던 고용주들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분야에서 대학 학위를 가진 외국인들을 모집한 것. Meta, Salesforce 등 규모가 큰 IT 회사의 경우 평균 급여는 보너스와 스톡옵션을 제외하고 약 17만 5천 달러였다.
- 연준의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크고 작은 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감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Specialized Employees

Many visa holders have high-paying jobs like software engineer



Source: Labor Department filings for H-1B visas, Q3 2022

Bloomberg 기사

### CNN Business: Get ready for bigger paychecks: Record high increases expected in 2023

미 고용주 내년 임금 4.6% 인상 계획... 15년만에 최고치

- 컨설팅사인 Willis Towers Watson가 1천5백50개의 업체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간으로는 15년 만에 최고치이다. 이 조사는 10월 3일부터 한

달간 조사한 수치다.

- 이같은 인상폭에 대해 대부분의 업체들은 고물가와 타이트한 노동 시장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임금 인상은 4.2%라고 답했다.
- 고용주들은 이같은 급여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 응답자 21%는 총 보상 패키지를 재평가하고, 17%는 제품 가격을 올리고, 12%는 구조 조정이나 인력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 WSJ: Best Buy, Dick's Ease Fears About Holiday Spending

#### 베스트바이와 Dick's Sporting Goods, 비교적 양호한 3분기 실적 발표

- 두 소매업체의 3분기 매출 및 순이익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월가 예상을 넘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의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자제품과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
- 베스트바이는 3분기에 수익이 감소했고 매출도 10.4% 감소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예상 보다 좋은 편이고 내년 1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의 판매 목표를 약간 올렸다.
- 디크도 3분기 수익이 떨어졌고 스토어 판매 규모도 6.5% 감소했지만 향후 회계연도의 매출과 수익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WSJ 기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살얼음판 코인시장 '대출업 큰손' 파산설

##### 제네시스, 자금 수혈 실패 코인베이스 주가 9% 급락

세계적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 여파가 가상화폐 대출업계 큰손인 제네시스에도 번지고 있다.

FTX에 상당한 자금이 묶여 있는 가운데 고객들의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까지 이어지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급기야 회사 내부에서는 파산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제네시스가 자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만일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할 경우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소식통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FTX의 파산 신청 이후 최소 10억달러의 신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제네시스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